

권고

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국장

뉴욕시 보건법("보건법") 섹션 3.01에 의거 2020년 3월 25일 시 전역에 COVID-19로 인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고, 그로 인해 뉴욕시와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명령들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**사실에 비추어**,

뉴욕시에 COVID-19 사례와 입원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, 사례 증가율을 완화하고, 병원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들이 정당하다는 **사실에 비추어**,

고령자와 특정 기저질환자는 중증 COVID-19에 걸릴 위험이 높아 합병증, 입원,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**사실에 비추어**,

보건 국장은 이에 고령자(특히 만 65세 이상)와 중증 COVID-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, 그런 개인의 가족 구성원과 간병인에게 권고문을 발행합니다.

따라서 이에 귀하에게 다음 고지를 제시합니다.

COVID-19의 확산으로부터 귀하와 가족 구성원, 지역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, 출근이나 등교를 위한 외출 또는 진료, 식료품 쇼핑, 약국 필수품을 비롯해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택 외 활동을 제한할 것을 귀하에게 권고합니다.

더 나아가, 뉴욕 시민, 특히 본 권고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공공 장소와 모임을 피하고, 가족 구성원이 COVID-19 증상을 보이거나, COVID-19에 감염된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, 대중과 빈번하게 교류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주위에 있을 때를 비롯해 실내외에서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, 집 밖에서는 항상 타인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, 아프면 COVID-19 검사를 비롯해 필수 진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고,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간 손을 씻으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,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을 비롯해 훌륭한 손 위생을 실천하고, 빈번하게 접촉하는 구역은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.

추가적으로, 가능한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수 간병인을 제외하고 자택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을 것과 뉴욕시 내외에서 이동을 피할 것을 귀하에게 권고합니다.

COVID-19로 인해 중증 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아지는 기저질환에는 암, 심부전, 관상 동맥 질환, 심근증 등의 심각한 심장 질환, 만성 신부전, 제 2형 당뇨병, 임신, 겸상 적혈구 빈혈증, 비만, 고형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손상 상태(면역력 약화), 흡연,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습니다.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의 전체 목록은 [CDC 웹사이트](#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귀하에게 만성 질환이나 기타 질환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, 보건의료 제공자의 조언에 따라 필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.

COVID-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.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.

자세한 정보와 지침은 nyc.gov/health/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.